

아파트·빌라 이어... 단독주택도 8년4개월 만에 꺾였다

**아파트·빌라 이어 11월부터 단독주택도 하락반전
서울 강북 하락세 두드러져...경기에선 과천·의왕
단독 매매량 감소폭도 아파트 보다 커...위축 심각**

주택 시장 침체 속에 나홀로 버티던 단독 주택 가격도 결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0.02%) 이후 8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부동산원 월간 데이터 기준으로 아파트가 올해 2월 가장 먼저 하락세로 전환했고, 연립·다세대(빌라)가 올해 5월 하락 전환한데 이어 마지막으로 단독주택마저 꺾이면서 3개 주택 유형 모두 하락세로 접어들게 됐다. 아파트(11월 기준 -2.02%)와 연립·다세대(-0.52%) 가격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다 지난달부터 단독주택 가격마저 꺾인 것은 본격적인 주택 시장 침체기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한 동북권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이 전월 대비 각각 0.28% 떨어져 하락폭이 컸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외곽 지역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난해 영골 매수세가 몰렸던 중저가 지역이 급리인상에 따른 타격을 더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과천·안양·성

남·군포·의왕 등이 속한 경부1권(-0.44%)과 여주·이천 등이 포함된 동부2권(-0.39%)의 하락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상승세를 유지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지방 역시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충북의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4%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대전(-0.33%), 세종(-0.24%), 울산(-0.22%)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강원(0.09%), 전남(0.05%), 경북(0.04%)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단독주택 거래시장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단독·다가구 매매가

량은 153건으로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작년 같은 기간 693건에 비해서는 7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2196건에서 559건으로 75% 감소한 것보다 감소폭이 큰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 단독주택 가격 움직임이 늦게 나타난다"며 "급리인상 추세가 이어지면서 단독주택도 결국 전체적인 주택 가격 하락 추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추위에 겨울 생활가전 관심...쿠쿠, 판매량 ↑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본격적인 강추위에 돌입하면서 겨울 생활가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쿠쿠는 카본 히터와 가습기의 판매량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쿠쿠홈시스템이 공개한 '쿠쿠 카본 히터'의 판매량 분석 결과, 지난 21일까지 집계된 이달 판매량이 전월 대비 28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본 히터가 지난 11월 출시 직후 한파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겨울철

카본히터·가습기 판매량 급증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효율 카본 열선을 탑재한 쿠쿠 카본 히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카본 열선은 산소를 태우지 않아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발생 우려가 없고 불쾌한 냄새나 연기·그을음이 없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다. 2.5kg 가벼운 무게로 이동 또한 쉽고 간편하다.

같은 기간 쿠쿠전자의 가습기도 판매량이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21일까지 집계된 12월 가습기 전체 판매량이 전월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지난 11월 출시한 '아이편한 가습기 터워'의 12월 판매량은 전월 대비 84% 증가하며 쿠쿠 가습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 제품은 바닥에 세워 사용하는 스탠드 방식으로 수조가 하부에 위치해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10ℓ의 넉넉한 대용량 수조로 한 번의 급수만으로 최대 28시간 동안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자동 습도조절' 기능을 통해서도 사용 환경에 맞춰 가습량 조절도 가능하다.

쿠쿠 관계자는 "실내를 따뜻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카본 히터와 가습기를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며 본격적인 겨울 가전 성수기에 돌입했다"며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고효율 제품 여부가 주요한 구매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LG전자, 2023년 올레드 TV 맞춤형 사운드바 공개



LG전자는 2023년형 LG 올레드 TV 맞춤형 사운드바 신제품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운드바 신제품(모델명 SC9S)은 LG TV 신제품과 맞춤형 입체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와우 오케스트라' 기능을 처음 탑재했다.

TV 스피커와 사운드바 스피커 오디오를 동

시에 출력해 풍부한 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기존에는 TV와 사운드바를 연결해 사용하더라도 TV와 사운드바 중 한 제품에서만 음향이 나왔다.

고객은 LG TV의 웹OS 홈화면에서도 스마트 TV 리모컨으로 사운드바의 설정 상태를 확인하고 음악, 영화, 스포츠 등 사운드 모드나 음

량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신제품은 전면 스피커 3개, 중저음을 내는 서브우퍼 1개, 업파이어링 스피커 3개 등 3.1.3 채널에 최대 출력 400W를 지원한다. 업파이어링 스피커는 사운드를 공간의 위로 보내 머리 위에서 사운드가 들리는 효과를 통해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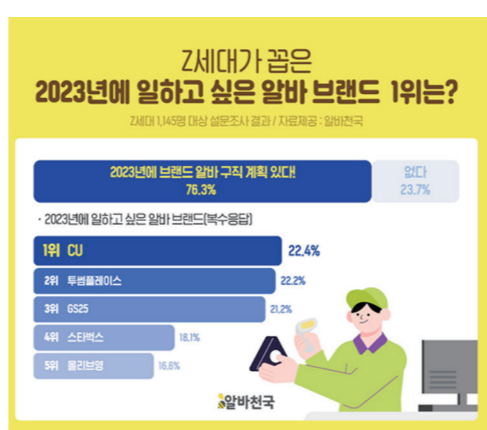
중앙에 위치한 업파이어링 스피커는 TV 아래 사운드바에서 출력되는 소리를 TV 화면 중앙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준다. TV 크기가 커지면서 화면 중앙부와 사운드바 간 거리가 멀어져 생기는 이질감을 줄이고 사실감을 높인다.

돌비앤티모스, 아이맥스 인핸스드 등을 적용해 집에서 영화관처럼 소리를 즐길 수 있다. 4K와 120Hz의 고화질 콘텐츠도 매끄럽고 끊김 없이 재생해 사운드바와 TV에 콘솔게임기를 연결해 게임도 즐길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주변 공간과 콘텐츠 장르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제공한다. 2채널 음원을 입체음향으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탑재했다.

김재환기자

Z세대 4명 중 3명 "브랜드 알바"가 좋아...알바생 권리 보장



Z세대(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 4명 중 3명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등 유명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알바천국에 따르면 Z세대 1145명을 대

가장 선호하는 알바 직종은 '커피전문점'

상으로 이 같은 '브랜드 아르바이트(알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76.9%가 '브랜드 알바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브랜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는 임금, 복지 등 알바생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할 것 같아서'(48.4%·복수 응답), '급여 지급 지연,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44.2%)를 브랜드 알바 선호 이유로 꼽았다.

이어 '직업 교육 등 근무 매뉴얼을 잘 갖추고 있어서'(39.3%), '최저시급이 보장되기 때문에'(39.1%) 등의 응답도 있었다.

브랜드 알바를 선호하는 직종은 '커피전문

점'(48.6%·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편의점(41.6%) ▲영화·공연(35.1%) ▲베이커리·도넛·떡(33.5%) ▲아이스크림·디저트(30.8%) ▲패스트푸드(26.4%) ▲서점·문구·팬시(25.2%)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알바천국 브랜드 채용관에 입점한 브랜드 중 공고 수 및 지원량 상위 50개 중 실제로 일하고 싶은 알바 브랜드를 최대 3개까지 고르도록 한 결과 'CU'가 22.4%(복수응답)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투썸플레이스(22.2%)와 GS25(21.2%), 스타벅스(18.1%), 올리브영(16.6%) 등도 순위권에 올랐다.

뉴스

전월세 동반하락세...임주물량 증가세

2019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내림세 전환

3년 동안 오르던 월세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급리인상과 맞물려 월세 수요가 늘며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급매로 나온 전세매물이 먼저 소화되면서 월세의 인기가 주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안 급리가 더 오른 전방이라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는 지속되었지만, 내년 입주 물량이 적지 않아 임대차 시장 가격은 대체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종합 월세가는 전월 대비 0.11% 떨어져 10월 0.05%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전국 월세가가 내림세를 보인 것은 2019년 10월(-0.01%)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이다. 수도권(0.06%→-0.21%), 서울(0.09%→-0.04%), 5대광역시(-0.02%→-0.17%), 세종(-0.39%→-0.36%) 등에서 하락세였다. 아파트만 따로 떼어 보면 전국(-0.18%), 수도권(-0.32%), 서울(-0.07%) 등 하락폭이 더 크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월세의 인기가 높아지고 가격도 높아져 왔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4.5로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가 11월 104.4로 한 폭 꺾였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전세에서 월세 전환

된 물량이 소진되고 전세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일부 지역 위주로 동반 하락, 인전은 대단지 입주물량 영향으로 전세가격 하락세가 급격히 진행되는 지역 위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잠실동 리센츠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24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40만원에도 계약이 됐지만 지난 21일 5억원, 2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고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호가도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월세가 하락은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일시 현상일 수 있지만 내년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 우위 시장이 펼쳐지며 전세 및 월세가 동반하락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모두 30만2075가구로 올해 25만6595가구보다 약 18% 증가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경기·인천 모두 올해보다 물량이 늘고, 서울에선 강남구·은평구·서초구 순으로 공급이 많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세가가 비싼 상태로 유지되는 일부 하이엔드 시장을 제외하고는 전세가의 등락에 따라 월세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까지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가와 월세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유나기자

극초고화질 블랙박스...파인디지털 '파인뷰 LXQ500 파워'

QHD 화질 적용...주행상황 선명하게 기록

파인디지털은 극초고화질 QHD 블랙박스 '파인뷰 LXQ500 파워'를 정식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인뷰 LXQ500 파워는 어떤 주행 상황에도 최고 수준의 화질을 바탕으로 주행과 정차 상황 중 발생하는 주요 상황을 선명하게 기록하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이 제품은 QHD(2560*1440) 해상도를 적용해 도로 상황을 왜곡 없이 기록한다. HDR 기능 적용으로 터널과 주차장 진·출입 등 조도 변화가 급격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영상을 제공한다. SONY STARVI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 빛이 적은 야간에도 시인성이 우수하다. 충격 발생 시 영상을 직접 확인하거나 차량

을 직접 살펴보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AI(인공지능) 충격 안내 2.0' 기능도 적용됐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주행 중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충격 위치는 8개, 충격 크기는 3단계로 세분화해 다중 충격 여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전 운전을 보조하는 기능도 다수 탑재했다. 제품은 신호 대기 중 앞차 출발 시 움직임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운전자가 주의 경고를 탑재해 운행 시간에 따른 휴식 권고로 졸음운전까지 예방한다. 배터리가 일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블랙박스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한다.

블랙박스의 모든 기능을 별도 PC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파인뷰 와이파이' 기능도 있다.

이슬비기자